

일상 제의행위 변화가 현대 혼성적 공공공간에 끼친 영향

- 매개공간의 공간전유 변화를 중심으로 -

한소영* · 한선희** · 조경진***

*서울연구원 ·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I. 서론

최근에 공공공간의 사유화 혹은 그 반대로 사적공간의 공공공간화와 같이 혼성적 공공공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공공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이용에 제약 받는 공간 혹은 사유지임에도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있는 공간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떠올릴 수 있다. 예컨대 식당, 커피숍, 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의 오픈 스페이스는 공공에게 열려 있지만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현대사회에서는 도시 공간의 지능적 분화와 특화가 심화되어 쇼핑몰도 공공공간적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따라서 현대도시에서 공공의 의미는 이용하는 대상과 소유의 주체에 의해 분리되지 않는다. 공공의 공간은 분절된 사적영역의 집합이 아니라, 개개의 구성원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다.

이제까지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과 현상에 대한 사례 연구는 많았지만, 그 요인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일부 사회학과 지리학 분야에서 다루어진 했지만, 대부분이 소비자본주의를 원인으로 보고 이러한 공간을 이용한 기업 권력의 비대화, 혹은 공공장(public realm)에서의 유틸리티 공간의 사적 활용으로 인한 공공 정보의 사인화(privatization) 등 비판적 메타담론들이다. 즉, 근대 이후 도시에서 사적인 영역은 과거에 비해 증대하고, 공공 영역과 분리되는 현상이 커지고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조화는 많은 문제점을 유발함을 지적한다(남기범,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이 긍정적 공공성을 표출하여 도시 공간에 활력을 주는 데에 기여한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조경진과 한소영, 2011). 본 연구에서는 우리 일상생활의 변화가 이러한 혼성적 공공공간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제까지 논의되어왔던 것과 같이 단순히 공간의 혼성적 사용, 가변성, 일시적 변용 등의 비가시적 공간 전유 방식으로서의 변화뿐 아니라, 물리적 변화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혼성적 특성이 나타나는 현대적 공공공간의 특성과 함께 이러한 공간의 전유방식에 있어 제의행위가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본다. 더불어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일련의 제의행위가 과거와 어떻게 달

라졌고, 이러한 변화가 혼성적 공공공간의 형성과 진화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혼성적 공공공간의 대표적인 장소인 입체복합시설들의 매개공간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혼성적 공공공간들이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본다.

II. 현대적 공공공간의 특성과 일상적 제의행위에 따른 공간 전유

1. 현대적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

일반적으로 공적 공간(public space)이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 관련된 개념이 혼용되고 있다(Goodsell, 2003). 공적공간이란 공적 관심이나 이슈들에 관하여 자유롭게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영역, 즉 공적 영역(public sphere)의 개념이다¹⁾. 다른 하나는 도시의 광장, 시장과 같이 개방되고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물리적 공간을 의미한다. 이 두 개념 간 공통점은 공적 공간의 개방성, 민주적 생활(특히 정치)을 위한 중요성, 그리고 근대화 과정에서 점차 소멸되고 있다는 점 등이며, 이러한 공통점을 전제로 이들을 적절하게 통합하여 새로운 여러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떠올릴 수 있을만한 개념의 공공공간의 의미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공공공간, 사적공간의 전환(transition)에 대해서는 인류학적 연구가 선도적이다(Turner, 1982)²⁾. 여기서 일컫는 혼성적 특성이 나타나는 공공공간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문화와 경제, 상품시장과 일상의 장소 등을 가로지르고 결합하는 공간이다(이무용, 1998). 도시민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도심거리와 같은 공공공간이 사적 자본의 공간상품화로 인해 공공공간으로서의 성격이 약해지고, 공공공간과 사적 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진 현대 도시에서는, 공공공간도 아니면서 사적 공간도 아닌 그 중간의 성격을 가진 호텔, 빌딩, 쇼핑몰이 전형적인 사례이다.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와 구입, 즉 소비라는 경제적 활동 이외에 사람들의 만남과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다중을 대상으로 한 전시회, 강연회는 물론, 공익성을 가진 회합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은 누구든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제적인 배제는 없으며, 전형적인 공공공간과 달리 사유화된 측면이 강하지만 모든 이에게 출입이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성과 폐쇄성,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물론 전통 재래시장에서 장터의 거리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흥과 멋의 어울림 장소로서 공공공간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그곳에서의 즐거움이 내생적이고 자생적이었다면, 현대의 쇼핑몰이 제공하는 즐거움은 어느 정도 인공적이고 '창출된' 유희로 여겨지기도 한다(전해은과 이기춘, 2002).

현대의 혼성적 공공공간은 인간 상호적인 만족과 성취를 얻으려는 특정 목적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상태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공간으로, 이쪽도 저쪽도 아닌 새로운 공간이므로 창조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혼성적 공공공간에서는 시민간의 자율적, 내생적이며, 다른 어떤 곳이나 시간보다도 사회적 역할과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인적 유대(human inter-relatedness)가 구축되는 커뮤니티(communitas)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일상생활의 제의행위와 공간 전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제의행위(ritual behavior)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 예컨대, 주일에배라든지, 백일이나 돌잔치, 성년식이나 결혼식 혹은 장례식과 같은 기념행사들, 설날이나 추석날과 같은 절기행사들, 혹은 입학식이나 졸업식과 같은 행사들, 그리고 기타 종교적 예배와 성례전들 뿐 아니라, 흔히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간에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습관들 -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이를 닦고 세면을 한다든지, 매일 밥을 먹는 행위, 규칙적으로 출근을 하는 행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 행위, 커피를 마신다거나, 음악 감상을 한다든지 하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간다.

제의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제의는 인간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일어나며, 인간은 제의행위에 의하여 살아간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회에서도 제의가 없는 집단은 없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제의는 인간의 보편적 현상으로 인간은 '호모 리추얼(homo ritual)'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따라서 제의는 하나의 사회 문화적 패턴이 되고, 제의적 상징과 행동을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며, 의미를 창출해냄으로써 삶의 역동적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터너(Turner)는 사회문화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힘으로 제의과정을 강조하는데, 특히 이 제의과정 중에서도 제의의 반(저항)-구조화의 역할을 중요시한다(Turner, 1982). 그는 이 제의의 반-구조화의 작용은 "전환기적 과도기(liminality)와" "커뮤

니타스(communitas)"의 두 개 모드로 구성된다고 이야기 한다. 이 중 터너는 전환기적 과도기에서의 역할을 더 중요시한다. 이 상황에서 제의적 커뮤니티는 단순히 기존의 주류의 가치나 구조를 반대하고 부정함으로 이루어지는 "연합"이나 "동맹"의 차원이 아니다. 이는 반(저항)구조로서 차별화를 없애고, 평등화하며, 직접적이고,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공동체적 관계가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제의적 커뮤니티는 규범적이지 않고 제도화되지 않으며, 추상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율적이고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발상이다.

이러한 전환기적 과도기의 개념은 인류학자인 반 게넵(Arnold van Gennep)의 "통과의례(The Rites of Passage)"의 도식에서 인용된다(Gennep, 1960). 게넵의 삶의 위기로부터 오는 통과의례의 개념을 터너는 전환기적이고 기능적인 의식에 초점을 두고, 결정적인 문화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동기로 적용하였다.

다시 말해, 전환기적 과도기는 전통사회의 제의적 주제가 일상적 삶과 분리된 상태에서 경험하는 내면적 변화의 단계를 의미한다(Turner, 1982). 이를 시공적으로 해석하면 도시 내에서 전통적인 경관이 있는 궁궐, 신전, 유적지에 접해서 현대적인 경관이 이어져 전통 공간도 아니고, 현대 공간도 아닌 공간을 의미하기도 한다. 때문에 집과 같이 개인의 일상적 삶이 영위되는 공간이 아니라 누군가와 공통의 제의적 행위를 행하는 장소의 경우, 제의적 주체가 겪는 경험과 공간 전유 방식이 그 공간이 어떤 전환기적 과도기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

III. 매개공간에서의 공간 전유와 변화

매개공간은 개념적으로 사적/공적공간을 이어주는 중간영역으로서 준공적/사적공간이 되며, 건축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완충해주는 반외부/내부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³⁾. 따라서 대규모 입체복합시설의 매개공간의 경우 현대의 혼성적 공공공간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매개공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공간 전유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낸다. 첫째, 사용자에게 공간의 내부와 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간에 있어서 연속과 분리, 공간의 순위적 질서 등을 부여한다. 둘째, 내·외부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공간을 활성화하고,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한다. 셋째, 매개공간의 역할을 통하여 공간의 구성 요소 전반을 통제, 총괄하여 시각화, 이미지화를 위한 질서의 틀로서 작용하는 공간구성요소를 총괄하는 질서화 요소로 사용된다(이효창, 2009). 하지만 매개공간의 공간 전유는 항상 일정한 형태로 유지되어온 것은 아니다. 큰 틀 안에서 세부적인 것들의 변화로 인해 물리적 형태도 달라져왔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입체복합시설들 중 1990년대에 설계된 코엑스와 센트럴시티, 2000년대 설계된 영등포 타임스퀘어와 디큐브를 사례로 우리들의 일상에서의 보편적 제의활동들이 매개공

간들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코엑스의 경우, 매개공간 구조는 위요공간과 연결축, 유인시에 구성에 따라 연결축이 강조되는 선형구조(一)의 틀을 지니고 있다. 위요공간, 연결축을 중심으로 하는 몰(mall) 구조를 통해 선형으로 주변시설들을 연결하고 있다. 코엑스의 몰 내 동선체계는 그리드 체계에 사선을 결합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안에서 순환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비교적 복잡한 가로체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각각의 가로에 개성을 부여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목적점을 찾아가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건물들과의 연결은 다발식 건물이기 때문에 여러 지점에서 이루어지고 각각 건물들의 프라이버시를 위하여 몰에서의 코어 연결은 개방적이지 않고 숨겨져 있는 형태를 취하면서 기능적 연결만을 강조하고 있다(양승철과 이희정, 2012).

센트럴시티의 매개공간 역시 코엑스와 비슷하게 몰 중심으로 그리드에 사선을 결합한 형태의 동선체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순환체계가 아닌 일방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선택적으로 돌아다니기보다 강제적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그리드 체계를 가로지르는 사선가로에는 주요한 요소에 광장을 형성하여 변화감과 개방감을 주고 있다. 건물들의 중앙에 있는 영플라자에서는 광장을 형성하면서 위에 있는 터미널과 연결을 하고 있으며, 백화점으로 연결도 되고, 호텔로의 연결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센트럴시티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코엑스의 경우, 매개공간에서 결절부(node)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결절부마다 내부광장이 만들어져 있었으며, 면적의 배분에 있어서도 결절부를 중심으로 넓은 면적의 시설이 자리하고, 나머지 보행로에 있어서는 도시의 상업가로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작게 나누어진 상업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몰 부분과 건물들과의 관계를 볼 때 연결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목적을 가진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건물단위에서 수직적인 기능의 분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반면, 센트럴시티는 면적 배분에 있어서 유사 기능들 간의 통합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큰 면적의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어 유인시설로서의 매개공간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특히 코엑스에서와 유사하게 결절부에 넓은 면적의 시설들이 자리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 조성된 타임스퀘어와 디큐브시티의 경우, 코엑스와 전혀 다른 공간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는 매개공간들 구성에 있어 더 확연한 차이를 볼 수 있다. 타임스퀘어 매개공간의 구조는 위요공간과 연결축, 유인시설에 구성에 따라 위요공간, 연결축이 강조되고, 유인시설이 두드러지는 복합형구조의 특성을 가진다. 기존 몰(mall) 구조와는 달리 아트리움, 자연식 채광, 보이드공간 등의 설계기법의 도입되어 개방된 새로운 몰(mall)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층의 유인시설을 통해 동선을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다. 특히 옥상정원의 경우, 모든 건물에서의 진입, 연결을 해주고 있으며, 백화점과 아트리움, 오피스와 호텔 그

리고 영화관 건물을 하나로 매개한다(양승철과 이희정, 2012).

디큐브시티 역시 비슷한 매장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타임스퀘어와 같이 건축물 중앙에 보이드 공간을 두고 개방된 새로운 몰(mall) 구조를 갖췄으며, 오랫동안 같은 장소에 머무는 고객들을 지루하지 않도록 불규칙적인 동선, 곡선적 벽면 등 불확실성과 긴장감을 유지하며 지각적 경계를 이끌어내고 있다. 타임스퀘어와 디큐브 시티의 매개공간은 공통적으로 자유로우면서도 불규칙한 공간 배분, 비효율적 공간 배분, 비효율적, 곡선적 동선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안과 밖, 즉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열린 공간의 형태로 띠고 있다.

IV. 일상 제의행위 변화에 따른 매개공간 및 혼성적 공공공간의 진화

현대의 소비문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독창적인 내러티브(narrative)를 형성하도록 변화하였다(Giddens, 1991). 즉, 개인에게 있어 소비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찾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부문이 되었다. 때문에 도시의 일상적인 시민들은 쇼핑장소를 통해 가장 대중적인 도시의 공공 문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통제되고 질서가 없는 도시의 거리나 시장지역보다는 보안과 안전이 확보되는 상업적 쇼핑몰이 도시민의 사회적 연계망을 확대하고, 개인이 사회와 만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첫째, 공공공간에서의 가장 큰 제의행위 변화는 휴대전화의 사용으로 인해 나타났다. 휴대전화의 사용은 공공장소에서의 대중의 약속과 만남에 있어 시간과 공간의 의미를 약화시켰다. 따라서 의례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와 입체복합시설에서 만날 경우, 코엑스에서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센트럴시티의 서점에 간다든지 등의 목적지향성을 띄는 경우가 많았다. 약속 장소로 출발 이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했으며, 혹시 그 장소가 건축물 내가 될 경우 여러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을 만한 장소여야 했다. 이때 대부분의 매개공간 전유방식은 주로 기다림의 형태로 나타났고, 건축물 내에서 공간은 쓰이는 공간과 쓰이지 않는 공간이 확실하게 나타났다. 때문에 결절부를 잘 조성하는 것이 중요했고, 공간 구획과 설계에 있어 효율성을 따질 수밖에 없었으나, 휴대전화 보급과 함께 구석진 어느 장소도 모두 개인이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기에 공간 활용에 있어 효율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둘째, 유비쿼터스(biquitous), 모바일 컨버전스(mobile convergence) 생활로 인해 누군가를 기다리는 행위, 함께 공간을 전유하는 방식에 있어 일상 제의 행위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이로 인해 고정된 물리적 공간을 벗어나 자유롭게 어디서든지 새로운 공간을 가상적으로 전유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공간을 탈실재화 할 수 있게 하였다(Wellman, 1977). 이는 사용자에게 제공

되는 벤치, 휴지통, 키오스크(kiosk), 시설물 등 외부공간의 질 향상과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컨대 스마트폰이 사용되기 전에 지어진 센트럴시티와 코엑스는 평면적이고, 개인적 공간들, 어포던스(affordance) 측면에서의 유용성을 따져 설계되었으나, 최근 지어진 디큐브시티나 영등포타임스퀘어의 경우 매개공간에서 파편적이고 점적으로 공격행위가 일어날 것임을 예상하고 설계되었다. 이로 인해 공간 질 향상, 넓은 오픈스페이스의 활용, 내부 조경 공간의 확장 등이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

셋째, 인터넷 쇼핑 발달로 인한 소비 행동과 쇼핑에 대한 인식 변화이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쇼핑은 즐기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필요한 것은 한 개인이 소비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따로 시간을 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한편으로는 노동의 일종이었다. 때문에 이 때 쇼핑은 누군가와 함께 즐거움을 공유하는 공공적 행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인터넷 쇼핑의 발달로 인해 개인은 필요한 물건의 대부분을 직접 가지 않고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온라인 매장은 있어도 오프라인 매장은 없는 쇼핑몰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때문에 꼭 필요한 물건을 쇼핑함에 있어서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눈으로 본 후 차후에 인터넷으로 온라인매장에서 구매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생겼다. 때문에 입체복합시설에서 쇼핑물들은 필요할 때 가서 꼭 구매를 해야 하는 목적지향적 장소가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시각적인 체험을 함께 하는 갤러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입체복합 시설에서 쇼핑몰과 동선체계에 있어 굳이 기존의 백화점과 같은 방식으로 효율성만을 따져 설계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방문객 대부분이 입점한 매장에서 무언가를 사기 위해 입체복합시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역으로 입체복합시설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방문한 후, 쇼핑은 만남 이후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행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건물 자체적으로 점적 매개공간의 증가와 입체화, 개방성 등을 지향하게 되었고, 건물 내에서는 매장 매개공간 간의 경계의 불분명, 디스플레이(display)에 있어서 과거에 비해 좀 더 적극적인 행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 혼성적 공공공간은 무선커뮤니케이션 기술로 인해 가상공간과 연결되고,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긍정적으로 보면 이는 인간과 장소를 연결하고 다양한 활동과 사회적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만남과 발전을 얻게 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소로 될 수 있다. 따라서 무수한 사용자와 제공자가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가는 쌍방향적인 진행과정을 밟으면서 진화해 간다. 결국 이러한 상호작용의 과정을 도외시키고 공간의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사회, 의식, 문화의 변화보다는 공간 자체의 물리적 변경을 통한 거리의 조성은 시민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기도, 다른 공간의 변화를 수반하기도 어렵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현대에 들어 나타나기 시작한 혼성적 공공공간이 프로그램적 측면뿐 아니라, 물리적 건조 환경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변화 및 진화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제의행위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 대표적인 혼성적 공공공간으로 여겨지는 입체복합시설의 매개공간을 사례로 살펴본 결과, 정보혁명⁴⁾에 기인한 우리들의 일상 제의행위 변화가 알게 모르게 공공공간 전유에 있어 변화를 가져 왔고, 이는 물리적 건조 환경의 변화로까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건조 환경이 우리들의 암묵적인 일상적 행동패턴, 즉 사소한 제의 행위들에 영향을 받고, 그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공간의 창조적 활용 및 공공장소에서의 긍정적 공공성을 표출하는 것의 시작은 결국 이용자임을 알 수 있었다.

현대의 혼성적 공공공간은 공공 공간을 사인화 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공적 공간을 시민들이 상호소통하고 만나고 삶을 즐기는 공간으로 더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대의 도시민은 주어진 상품과 서비스를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관객의 위치에서 벗어나, 도시공간과 그 공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소비하면서 즐기는 주체가 되었다. 도시공간의 소비행태는 종종 공공영역을 암묵적으로 특정계층의 사유 공간화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따라서 좋은 공공공간을 만드는 것은 공공공간이 수치적으로, 물리적으로 공적 영역성을 띄는 지에 대한 척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을 전유하는 도시민들 스스로 도시의 공간을 생산과 소비 중심에서 생활의 장으로의 인식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즉, 자본의 유혹과 성장기제의 논리에서 벗어나, 올바른 가치기준을 세우고, 지역 공동체를 통한 휴먼 스케일의 공공공간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주 1. 하버마스(2001)가 제안한 공적 영역의 개념은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국가의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또한 당파적인 경제세력으로부터도 자율성을 누리는 공론의 장으로서, 합리적 논쟁 — 이해관계에 결부되지 않고 ‘위장’ 또는 ‘조작’되지 않은 토론 — 에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그들에 의해 검열을 받는 영역”을 의미한다(최병두, 2005, 166에서 재인용). 즉, 공적 영역은 사적 개인이 자신의 의견을 공적으로 토론에 부쳐 논의할 수 있는 장이나 장소를 의미하며, 서구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8세기 이후 영국의 제국적 자본주의의 팽창과 함께 교회와 국가로부터 독립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자본을 축적한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극장, 예술, 카페, 소설, 비평 등 교양의 세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귀족들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전통적인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비판의 영역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주 2. 인류학에서는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 공간을 역공간(liminal space)라 칭한다. 여기서 역공간은 개인의 능력이 사회구조의 규범적인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공간(과 시간)으로 과거는 잠시 잊히고 파괴되며, 미래는 아직 도래하지 않아 모든 사물이 균형상태에 있어, 원래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순수한 잠재력을 보유한 시공간(interval)적 상태를 의미한다(Turner, 1982).

주 3. 정윤혜(2009)는 입체복합건축물과 다른 공간(혹은내부)을 연결하는

외부공간이라고 하였고, 박현근(2008)은 연합관계에 따라 형성되는 공간으로 둘 이상의 공간사이에 공간을 서로 연결시키거나 융합시키는 매체가 되는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주 4. 21세기 들어 정보혁명은 사이버 공간을 탄생시켰고, 물리적 공간을 사이버 공간으로 대체하려는 노력이었다면, 유비쿼터스혁명은 물리적 공간에 사이버공간을 접목시켜 상호접속과 유연성, 효율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다. 정보혁명에 중점을 두고 정보기술을 시공간 극복의 도구로만 이해하는 연구에서는, 이제 도시의 역할이 다했으며(death of cities), 거리마찰의 영향력이 감소(death of distance)하고, 이로 인한 지역과 공간 특성의 소멸(areal uniformity)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정보통신의 발달과 자본의 세계화의 빠른 진행이 지역과 공간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히 차별적으로 진행되었고, 낭만적 미래학자와 기술결정론자들의 예측과는 달리 복합적인 사회·공간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의 존재가 물리적 공간과의 관계구조 속에서 공진화(coevolution)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이 물리적 공간의 대체만이 아닌, 새로운 물리적 공간수요의 창출, 물리적공간이용의 효율성과 시너지효과의 증대, 물리적 공간구조의 합리성과 복잡성 증대 등 관계적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참고문헌

1. 남기범(2008) 컨버전스로 인한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 박현근, 정재용(2008) 입체복합시설의 매개공간에 따른 보행환경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pp.497-501.
3. 양승철, 이희정(2012) 입체복합시설 매개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 연구: 구성 및 구조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지 (279): 207-216.
4. 이무용(1998) 도심 속의 전자스펙터클. 문화과학 (14).
5. 이효창(2009) 복합용도건축물 내부 오픈스페이스의 공공적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 계획 요소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6. 전해은, 이기춘(2002) 현대소비공간과 소비행동. 소비자학연구 13(2): 99-125.
7. 정윤혜, 이유미, 한광야(2009) 입체복합건축물 매개공간의 접근성 실태 분석에 관한 연구용산 아이파크 몰(IPark Mall)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5): 319-328.
8. 조경진, 한소영(2011) 역공간(Liminal Space) 개념으로 해석한 현대도시 공공공간의 혼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146): 49-59.
9. 최병두(2005) 지식정보시대와 공간·환경의 패러다임 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 Gennep, Arnold(1960) The Rites of Passage. Chig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11. Giddens, A.(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Cambridge: Polity. 권기돈 옮김. 1997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후기 현대의 자아와 사회, 새물결.
12. Goodsell, C. T.(2003) The concept of public space and its democratic manifestations.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3(4): 361-383.
13. Turner, Victor(1982) Dramas, Fields, and Ritual Metahp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14. Wellman, B.(1977) "Who needs neighborhoods", in R.L. Warren ed., New Perspectives on the American Community, 3rd ed., Skokie, IL: Rand McNally.